

현대 인도의 양상 워크숍

2020년 9월 1일 - 14일

보도자료

주한 인도문화원과 인도대사관은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인도의 저명인사들과 함께하는 '현대 인도의 양상' 온라인 워크숍을 10일 동안 개최했다.

주한인도문화원은 인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전세계 청중들에게 인도의 문명부터 현대 인도까지 다양한 주제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전세계 인도문화원들 중 처음으로 이러한 지적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워크숍은 각 분야를 이끌고 있는 훌륭한 연사들의 현대 인도에 대한 강연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9월 1일 인도문화교류위원회 비나이 사하슈라분데 위원장의 '인도의 사상'에 대한 기초 연설을 시작으로, 마크란드 파란자페 교수와 루쉬케쉬 세나파티 교수, 모한 쿠마르 대사, 인드라니 박치 편집장, TCA 라그반 대사, 삼 사란 대사, 아만딕 길, 카말 키쇼르가 인도 철학, 교육 정책, 경제, 미디어, 외교 정책, 군축, 국제 안보와 재난 관리 등과 관련된 이슈에 관해 강연했다.

9월 14일 마지막 강연에서는 람 마다브가 인도의 민주주의에 대해 연설했다. 인도의 의회 민주주의에 관해 설명하면서 인도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그에 직면하는 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다. 그는 현대 인도를 건설해 감에 있어 마하트마 간디, 라젠드라 프라사드, B. R. 암베드카르와 같은 위대한 인도 지도자들의 공헌을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에 있어 '국민의 힘'의 역할에 대해 논하며 현 정부의 성과에 기대를 걸었다.

마지막 강연에는 오영진 코리아타임즈 사장이 참석해 양국의 역사-문화적 연계성과 지리-정치적 관점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며 '민주주의'는 두 나라를 묶는 공통적인 요소로서, 양국이 도전하는 비민주적인 세력에 함께 맞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 발전과 함께 한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길을 공유했다. 모든 강연은 인도문화원의 소셜 미디어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워크숍에는 한국과 인도의 학생, 학자, 연구원, 언론인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